

말라리아 매개모기 주의, 말라리아와의 싸움은 지금부터!

- '24년 23주차 기준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증가, 주의보 발령
-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위험지역 거주자는 발열 시 반드시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23주차(6월2일~8일)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하여 주의보 기준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6월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주의보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모기지수, TI)* 0.5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인 경우

경보 주의보 발령 이후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 첫 군집사례 발생 시
-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모기지수, TI)*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이상인 경우
- 채집된 모기로부터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된 경우

* 모기지수(Trap Index, TI) = 채집개체수/트랩수/채집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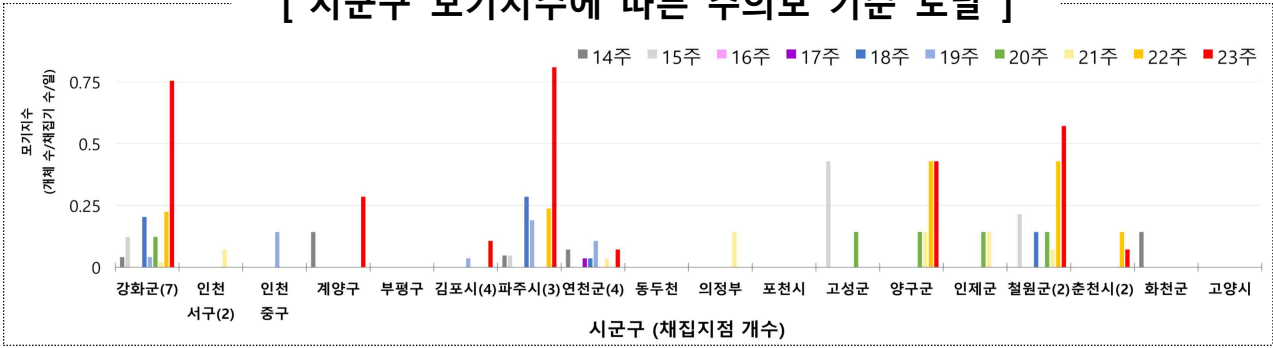
특히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 내 53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위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및 인식도 제고를 위해 '말라리아 주의보-경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말라리아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53개 시군구* 내 61개 지점(전체 76개 지점 중 지점과 채집 방법을 고려하여 일부 제외) 에서 23주차 매개모기 밀도 감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0.5이상인 지역[강화군(0.8), 파주시(0.8), 철원군(0.6)]이 3곳으로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기준을 충족하였다.

* 서울(13개), 경기(22개), 인천(10개), 강원(8개)

** 모기지수(Trap Index, TI): 하룻밤에 한 대의 채집기에 채집된 모기의 평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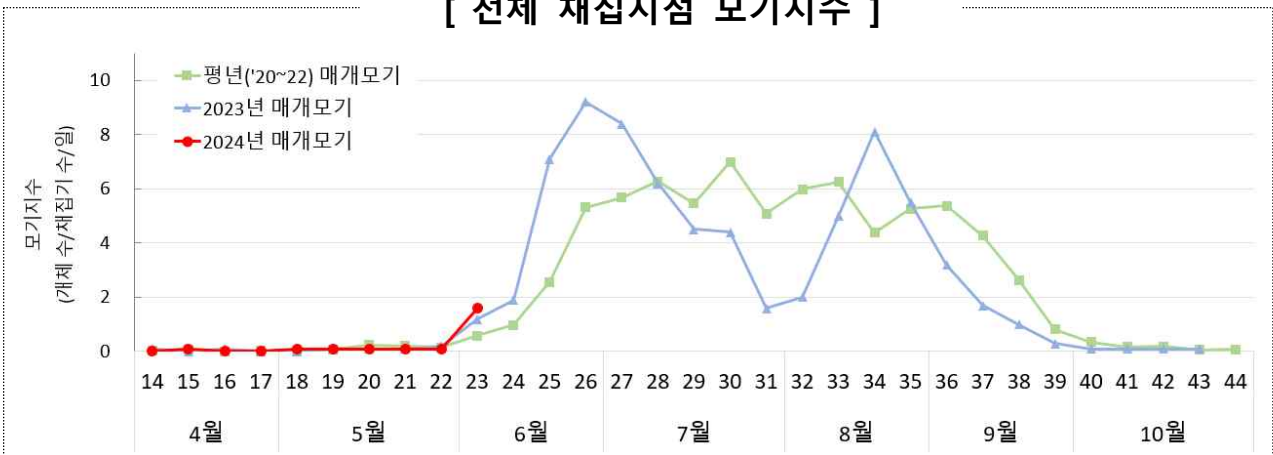
[시군구 모기지수에 따른 주의보 기준 도달]



올해 주의보 발령은 전년 대비 1주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23주차 최고 기온(27.3℃)이 평년 및 전년 대비 약 2℃ 높아져 모기의 활동이 다소 빨라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올해 기준을 전년도('23년도)에 적용할 경우 24주차에 해당

[전체 채집지점 모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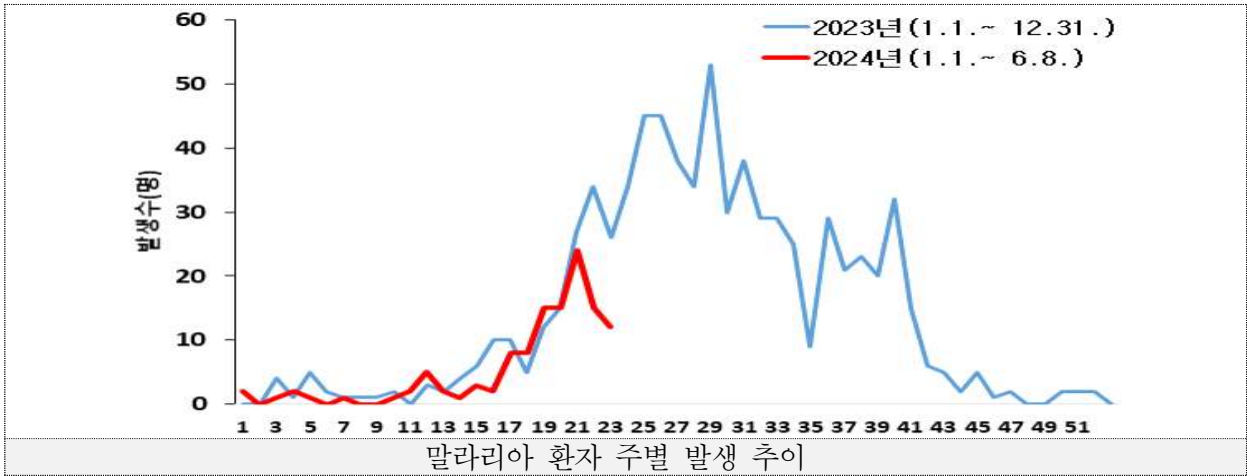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은 2009년부터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국방부, 보건환경연구원(서울, 경기, 인천, 강원), 보건소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간 감시 결과를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과 주간지**에 공개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간행물·통계 → 감염병 발생정보

**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 감염병소식 → 간행물·소식지 → 주간소식지, 실험소식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3주(1.1.~6.8.)까지 총 101명으로 전년 동기간(137명) 대비 26.3% 감소 추세이고, 지역별 환자 발생 현황은 경기(60.4%), 인천(14.9%), 서울(12.9%) 순이었으며, 역학조사 결과 주요 추정 감염지역은 경기(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강화군)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국가로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4개 추진전략을 포함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다.

* (추진전략) ▲환자감시 및 위험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 ▲말라리아 퇴치인증 기반 마련

지영미 청장은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 주민은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말라리아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위험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환자(37.5℃ 이상)가 방문 시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신속진단검사(RDT)와 확인진단검사(현미경검사 또는 유전자 검출검사(PCR))를 실시하며, 신속진단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임상역학적으로 필요시 유전자 검출검사(PCR)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말라리아 예방수칙 >

-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 ~ 일출 직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
- ◆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 실천
-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의심 증상(오한, 고열,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하며 두통, 구토, 설사 등 동반)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

- <붙임>**
1. 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관련 사항
 2. 말라리아 매개모기 특징 및 2024년 감시 지점
 3.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요약
 4. 말라리아 관련 질의응답(Q&A)
 5. 말라리아 예방수칙 홍보물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희일 (043-719-8560)
		담당자	연구사	김현우 (043-719-8565)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종희 (043-719-7160)
		담당자	연구사	이소담 (043-719-7175)

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정부 ☎129 / www.e-gen.or.kr



□ **목적**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으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에 말라리아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여 예방수칙 홍보 및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 예방약 제공 등 지역사회 내 유행 차단

□ **발령기준**

- 매개모기 및 군집사례 기준으로 설정

<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구분	발령 기준	범 위	주 체
주의보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TI) 0.5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인 경우(파주 조산리, 군 제외)	전국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경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보 발령 이후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 첫 군집사례 발생 시 -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TI)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이상인 경우(파주 조산리, 군 제외) 	해당 시·군·구	해당 시도
	채집된 모기로부터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된 경우(전체 채집지점)	전국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모기지수, Trap Index): 채집 개체수/트랩수/채집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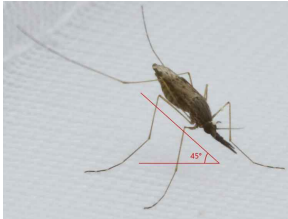
□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 주의보 발령 시 대국민 대상 말라리아 예방수칙 홍보 및 말라리아 위험지역 의료기관 발열자 대상 신속진단검사(RDT) 또는 유전자 검출검사(PCR) 실시
- 경보 발령 시
 - ① 군집사례 기준 : 해당 지역주민 중 추가사례 감지를 위한 지역 언론매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홍보, 지역주민 대상 신속진단검사 (RDT) 실시 및 공동노출자 대상 예방조치(예방약) 제공
 - ② 매개모기 기준 : 언론매체를 통해 위험지역 주민과 여행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고, 보건소는 환자 주변 및 매개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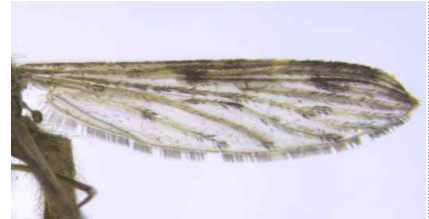
□ 말라리아 매개모기 특징

- (형태학적 특징)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Anopheles* spp.)'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중형(中形)모기로 날개에 흑백색의 반점 무늬가 있음. 휴식 시 복부를 40~50°의 각도로 들고 있고, 촉수가 주둥이만큼 긴 것이 특징.
- (서식 및 활동) 유충은 논, 수로, 웅덩이 등 물 표면에 수평으로 서식하며, 산란기의 암컷 모기는 야간에 소, 말, 돼지를 대상으로 흡혈 활동을 함 (흡혈활동시간 19~05시) 계절별 상이

[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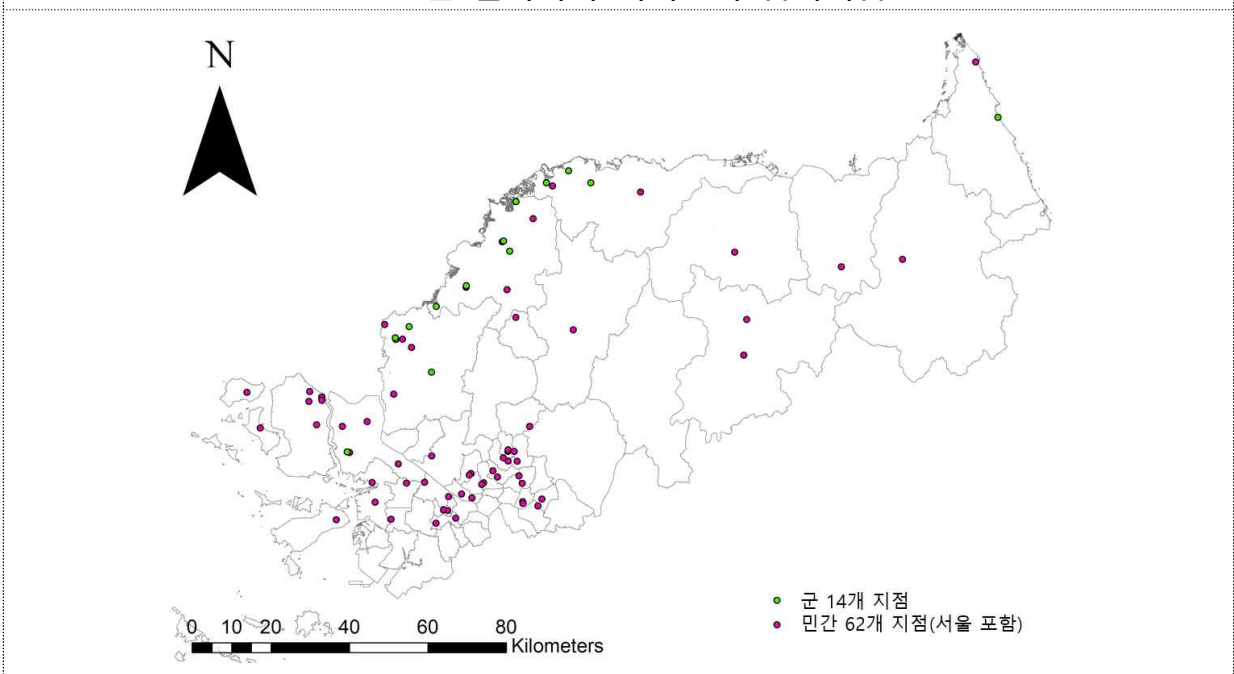
[얼룩날개모기류의 머리와 날개 특징]



□ 2024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지점

- 4개 시·도의 76개 지점: 민간 62개 지점, 군 14개 지점

<2024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지점>





한눈에 보는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정책 비전

말라리아 없는 대한민국, 건강한 동행

정책 목표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

4개 추진 전략, 10개 중점과제

1 환자 감시 및 위험관리 강화

- ① 선제적 환자 감시
- ② 환자 관리 강화
- ③ 말라리아 위험지역 관리 강화
- ④ 軍 말라리아 관리 강화



2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 ① 매개모기 밀도 및 원충감염 조사 강화
- ② 환경에 따른 맞춤형 방제 강화



3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

- ① 국내·외 협력 강화
- ② 다각화된 예방 홍보 및 전문성 강화



4 말라리아 퇴치 기반 구축

- ① 국내 말라리아 발생 근거 확보
- ② 국내 말라리아 퇴치인증 체계 마련



Q1.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원충은 간을 거쳐 혈액으로 들어가 적혈구에 침입, 증식을 반복합니다.
-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나 드물게 장기이식, 수혈 등의 특수한 경우에 혈액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Q2. 삼일열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말라리아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은 몇 분 또는 1~2시간 동안 오한, 두통, 구역 등을 보이는 오한 전열기를 거쳐, 따뜻하고 건조한 피부, 빈맥, 빈호흡 등을 보이는 발열기가 3-6시간 이상 지속된 후 땀을 흘리는 발한기로 이어집니다.
- 삼일열말라리아의 발열 주기는 격일 간격인 48시간입니다.
* 사일열말라리아 3일간격(72시간), 열대열말라리아 36-48시간(다소불규칙)

Q3. 말라리아 의심증상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습니다.
-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치료제를 모두 복용**해야 합니다.

Q4.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

- 2024년도 기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내 53개 시군구입니다.

시·도	시군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하남시
강원도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속초시,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입니다!



야간활동 자제
(해질녘~새벽시간)



야외활동 후 샤워



밝은색의 긴 옷 착용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



모기 서식처 제거



방충망 정비

